

12일 Market Index			
↑ 코스피	2482.12	↑ 코스닥	683.35
	(+39.61)		(+7.43)
↑ 금리 (미국 9년)	2.579	↑ 환율 (원/달러)	1432.90
	(+0.013)		(+0.70)



## 퇴진 거부 尹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

### 尹 대통령 대국민 담화

비상계엄 선포 이유 관련  
“국정마비 상황, 정상화 위한 대통령 법적 권한 행사한 것 사법심사 대상 안되는 통치”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자진사퇴·하야 등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시한 ‘질서 있는 퇴진론’을 거부한 것이다. 오히려 국회가 탄핵소추안(탄핵안)을 통과시키면 이에 맞서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사전 녹화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비상계엄 선포 이유에 대해서는 “국

정 마비의 망국적 비상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 비상계엄 조치”라며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고, 오로지 국회의 해제 요구만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정당성을 피력했다.

아울러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 행위”라며 “나라를 살리려는 비상조치를 나라를 망치려는 내란 행위로 보는 것은 우리 헌법과 법체계를 심각한 위협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이 거짓 선동으로 탄핵을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이겠느냐”며 “거대 야당 대표의 유죄 선고가 임박하자, 대통령의 탄핵을 통해 이를 회피하고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 단 하나”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려서라도 자신의 범죄를 덮고 국정을 장악하려는 것”이라며 “이것이야말로 국헌 문란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결단을 내린 이유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스템 관리를 언급했다. 해킹으로 선관위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면서 선거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유로 언급한 ‘부정선거 음모론’이 사실이었음

을 시인한 셈이다.

윤 대통령은 담화에서 “선관위 시스템 장비 일부만 점검했지만, 상황은 심각했다”며 “국정원 직원이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는가”라며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이유에 대해 “계엄 선포 방송을 본 국회 관계자와 시민들이 대거 몰릴 것을 대비해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한 것이지,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이 아님은 자명하다”고 설명했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탄핵정국 관련기사 2·3·4면〉

## “외환위기 없지만 불확실성은 여전”

최상목 “韓경제 기본체력 있어 시장 충격 벗어나 비교적 안정”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지금의 한국 경제가 1997년 외환위기와 같은 상황을 맞닥뜨릴 가능성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최 부총리는 12일 공개된 일본 닛케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경상수지가 흑자를 유지하고 있고 한국 경제는 기본적인 체력을 가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달 3일 윤석열 대통령발 계엄 사태 이후 주식·환율의 불안정성과 관련해 최 부총리는 “시장이 큰 충격에서 벗어나 지금은 비교적 안정된 상태이다. 시스템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혼돈의 시국 속에서도 한일 양국 간 양호한 관계는 변함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의 반도체 산업에 있어 “일본과의 공급망 구축이 필수적”이라며 “한국은 반도체를 제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반도체 장비와 소재는 일본이 뛰어난 만큼 양국은 서로 보완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고 말했다.

양국 관계의 미래에 대해서는 “(역사 문제로 한일 관계가 악화했던) 2019년과 같은 상황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또 “국민들은 일본과 파트너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다”며 “국제 무역 환경의 불확실성 속에서 양국의 협력은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인들이 내한 관광을 자제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지적에 최 부총리는 “한국에서의 일상은 평소와 다름없이 운영되고 있고, 외국인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걱정 없이 방문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은행연합회에서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열고 대내외적으로 불확실성이 여전하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 불확실성, 미국의 기준금리 결정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경제·금융상황점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24시간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필요시 시장 심리를 반전할 수 있도록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3면에 계속)

/세종=김연세 기자 kys@

## 한동훈 대표 “탄핵 찬성… 그것 외에 방법 없다”

(국민의힘)

“임기 등 문제 당 일임 약속 어긴 것 당 의원들 다음 표결 때 참여해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대통령이 조기퇴진할 의사가 없음이 확인된 이상 즉각적 직무 정지가 필요하다”면서 오는 14일 2차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입장 발표에서 “더 이상의 혼란은 막아야 한다. 이제 유효한 방식은 단 하나뿐”이라며 “다음 (탄핵소추안) 표결 때 우리 당 의원들이 회의장에 출석해서 소신과 양심에 따라 표결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조기퇴진을 전제조건으로 대통령의 직무를 배제하고 국민의힘과 정부가 공동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구상을 제안했으나, 윤 대통령이 이에 동의하지 않아 이 같은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한 대표의 입장 발표가 나온 시간에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과 22대 총선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다.

한 대표는 “최근 대통령이 우리 당의 요구와 본인의 입법에 따라 논의 중인 조기 퇴진에 응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임기 등 문제를 당에 일임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어긴 것”이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발언을 하고 있다. 한 대표는 자신에게 항의하는 의원들에게 “자유롭게 발언하세요” 라고 말했다. /뉴스1

고 부연했다.

한 대표는 “우리 당은 계엄 직후 비상계엄에 즉각 반대하고 국민과 함께 목숨을 걸고 막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군경의 국회 진입이 시작되자 군경에게 지시를 따르지 말라고 호소하고 국회 계엄 해제 요구에 앞장섰다”고 했다.

또 “계엄 선포 당시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위헌, 위법한 개헌에 관련한 사람들을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이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우리 당은 집권여당으로서 이번 사태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할 책임이 있고 계엄 종료 후에 엄정하게 책임을 물으면서도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원로와 많은 정치인의 고견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한 대표는 “저는 과거 경험상, 탄핵은 여러 혼란과 반목으로 피해가 크고 오래 가며 그것으로 인한 혼란과 피해에 대한 국민의 경험과 우려가 크기 때문에 탄핵보다 더 신속하고 예측가능성 있고 질서있는 조기퇴진 등 국민과 이 나라에 더 나은 길을 찾으려 백방 노력했지만 역부족이었다”고 토로했다.

한 대표는 취재진과 질의응답 과정에서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 것이냐는 물음에 “그렇다. 그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답했다.

다만, 이날 원내대표로 선출된 권성동 의원은 당선 후 기자들과 만나 윤리위 소집과 관련해 “윤리위를 소집해서 (대통령을) 제명하는 것보다 그런 의사를 용산에 전달하면 대통령이 알아서 거취문제를 판단하지 않을까”라며 탄핵 찬성안에 대해 선을 그었다.

/박태홍 기자 pth7285@

### 뉴스터미널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이준석 “尹 부정선거론 내세워 나라 절단”  
▲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안 가결로 직무 정지 /사진 뉴스1

▲ 경찰, 합참에서 ‘비상계엄’ 자료 임의 제출 받아  
▲ 제23대 진해기지사령관에 한승우 사령관 취임



▲ 박성재 “탄핵 소추 사유 전혀 동의할 수 없어” /사진 뉴스1  
▲ 합참의장 “정치적 중립 유지하며 본업 임무 집중”